

# 해남군,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총력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 온 힘  
진흥구역 계획 용역...신청서 접수  
국회·중앙부처에 지정 필요성 어필  
친환경 유기인증 김 브랜드 개발



해남군이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가 김 산업 진흥을 위해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해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이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가 김 산업 진흥을 위해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해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공모로 전국 3개소를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50억원씩 총 150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을 지원한다.

군은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에 대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해남군의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김 산업 진흥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지난 14일 해남군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 신청서를 해수부 수출과 공진흥과로 제출했다.

군은 황산면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증 김 양식지구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물감만을 사용해 황산면 김 가공공장에서 친환경 유기인증 마린김을, 수산식품 거점단지에서는 조미김, 스낵김 등을 지역특산 브랜드로 제품 개발에 판매할 계획이다.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물질 선별기, 절단기, 조합기, 탈수기, 건조기, 유해 물질 검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외식품박람회 참가와 수출 관련 8상담 및 인증대행업무도 해 준다.

군 자체적으로는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김 양식 기자재와 김 냉동방 보관시설, 김 육상채묘 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산면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증 김을 생산하는 5개 어촌계는 2014년 12월 신협어촌계가 전국 최

초로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산소·한자·질·성산어촌계도 연이어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966ha에서 2708t을 생산해 37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해남군 관계자는 21일 "황산면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증 김 원물을 기반으로 진흥구역과 수산식품 거점단지 연계를 통한 김 산업 고도화를 할 계획"이라며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반드시 해남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선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군 음식점 "수건 대신 핸드타월 사용"

386개 업소 중 273곳 교체  
설치율 4개월만에 71%로 증가



신안군이 추진하는 음식점 핸드타월 교체·설치에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신안군에 따르면 관내 음식점 386개 업소 중 273곳이 수건에서 핸드타월로 교체·설치됐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8월 기준 34%의 설치율이 무려 4개월만에 71%로 증가했다.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은 젖어있는 경우가 많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울 뿐 아니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주 손을 닦아야 하는 환경에서는 더욱 더 감염되기 쉽다.

이에 따라 지역 모든 음식점이 핸드타월을 설치하도록 독려할 계획으로 신안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런 작은 변화에 적극 동참해 준 영업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관리를 위해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목포시 소상공인 용자금 이자 지원사업

3000만원 대출 이자 3% 보전

목포시가 대출이자 3%를 지원하는 '2023 소상공인 용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주점업과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는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는 대출 기한을 2년으로 확대했으며,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 붙는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보증부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등 물가와 금리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완도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年 10만원

완도군이 청년 구직자들의 자립 기반 형성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둔 19~49세 미취업 청년이다.

지난달 1일 이후 어학(8종), 한국어, 국가 자격증(국가 기술 자격증, 국가 전문 자격증)을 실제로 응시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당해 연도에 한 해 최대 2회 가능하며, 실제 결제한 응시료 비용을 1인당 합산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완도군은 청년취업지원에 위해 지난해 청년드론 전문가 양성 및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운영했다.

정인호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에 따른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현대삼호중공업

대출 신입사원 60명

품질 마인드 함양교육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대출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며 우수인재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입사한 대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품질 마인드 함양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한 달가량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품질 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신입사원들의 품질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내입과 외입 공정별 검사 품질 관리 실습, 조립 단계별 정도 주요 관리사항 실습, LNG CSS 품질 관리 및 테스트 등이다.

교육은 지난 1월 입사한 대출 신입사원 60명을 대상으로 30명씩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 1월 시작된 1차수 교육은 내달 2일까지, 2차수 교육은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뤄진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통해 평가가 진행되며,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추진될



품질 마인드 함양교육을 받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신입사원들이 교육장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들어 수주물량 확대에 따라 신입사원 채용도 점차 늘리고 있다.

지난 2021년 54명, 지난해 71명에 이어 올해는 벌써 60명을 채용했으며, 이는 지난 2008년 호황기에 입사했던 73명 이래 최대 규모다.

수주는 지난해 목표 대비 190%가 넘는 48억, 87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도 이미 LNG선 2척과

컨테이너선 19척 등 총 21척, 34억 달러 가량을 수주해 목표 대비 132%에 이르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일감 증가에 따라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며 "최근 친환경선박 수주 증가로 열정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필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무안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지난해 10~12월 3개월 치

무안군이 지난해 10~12월 3개월 치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0.05원으로, 모두 3억7000만원 규모이다.

농사용 전력(을)은 농사용 용역과 농작물 재배, 수산물 양식,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해충 구제 및 유인용 전등, 농산물 건조시설 등에 사용된다.

농업 경영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고, 지원 기간 요금을 모두 낸 상태여야 한다.

공동 경영주 운영체는 그중 1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주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기 사용장소가 있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할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한전 고객센터 등이다.

군은 한국전력공사 무안지사를 통해 신청자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사업대상자의 전력량,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오는 4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본격화

연말까지 1단계 1500t 시설 준공

해남군이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조만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오시아노관광단지 개발은 1992년 507만 3000여㎡ 규모로 지정된 후 1995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2012년 골프장과 단지 내 도로, 부지조성이 완료됐다.

그 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난 2021년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을 국·도비로 지원받게 돼 활성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해 올해말까지 1단계 하루 1500t 처리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토목, 건축, 기계, 조경)공사 분야에 대해서도 조달청 사무 위탁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2023년 하반기 완



오시아노 관광단지 전경.

공 예정인 리조트호텔과 더불어 30여 년간 지체된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본격적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해 조달청

에 발주·의뢰했으며, 결정되는대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며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서남해안 관광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선 기자 dia@kwangju.co.kr

## 각 부서 활성화 방안 논의

쿠폰 발행 등 아이디어 39건

무안군이 무안의 명물 빨낙지거리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무안군은 최근 군 실단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가 지정한 '맛도남도 빨낙지거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2019년부터 추진한 무안빨낙지거리 조성사업 및 2022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착안 사항 보고와 자유 토론에 이어 김산 군수의 총평 등으로 진행됐다.

각 부서에서 발굴된 맛도남도 빨낙지거리 활성화 방안은 ▲기획실 '낙지거리 복권&쿠폰 발행'의 4건 ▲신도시지원단 '관광지 등과 연계한 할인혜택 제공'의 4건 ▲미래성장과 '낙지거리 음식점 매뉴 개발 컨설팅 진행'의 1건 등 26개 부서가 아이디어 39건을 발굴해 실질적인 빨낙지거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됐다.



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고된 안건들을 검토해 우수한 아이디어는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음식명품거리로 조성된 무안 빨낙지거리를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가꾸고 활성화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목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

목포시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가정에 1인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 전원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수 장구를 11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격확인 및 신청서를 작성하

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목포사랑상품권 카드로 1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교육의 보편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목포사랑 상품권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